

IBKS FI Comment

고질적인 문제, 가계부채

- 금주 시장이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것
- 다만, 21일 발표되는 국내 1분기 가계신용 역시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
- 국내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 국면에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4월까지 은행 가계 대출이 상승한 점은 향후 긴축 스탠스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
- 최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하회
- 다만 여전히 주요국들 사이에서 높은 수치를 유지
- 한편,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도 감소해온 것으로 보임
- 당분간 국내 채권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고질적인 문제인 가계부채

금주에는 주요 이벤트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경계심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 수정 발표다. 다만 상당 부분 시장이 이에 대해서 선반영을 한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도 하다. 이를테면 국내 1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고려할 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에 더해 21일 발표되는 국내 1분기 가계신용 역시 시장이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 수준의 수치(이를테면 1조 9천억 원 상회)를 기록하지 않는 한, 당장 국내 금리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재점검할 수는 있다. 필자는 지난 자료에서 '24년 1분기에 완화되었던 긴축 부담이 1분기 은행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다시 하방 압력 속 3.5%를 하회하고 있으며, 4월 기준 은행 가계 대출은 또다시 증가했다.

지난 기자회견들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 단 하나만으로 국내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계부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는 했으나,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좌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주요국들의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서, IIF가 집계한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100%를 하회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 98.9%이며 주요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부채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같으며 여전히 상위권이기도 하다.

한편 필자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FX SWAP 시장에서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국내 외화자금시장 개선, 연준과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유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및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당분간 부각되기 힘들 것이며, 국내 금리가 상대적인 강세 압력을 받기 힘들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동안 국내 채권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Fixed Income Analyst

권기중

02) 6915-5654

kjoong@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4월까지 상승한 국내 은행 가계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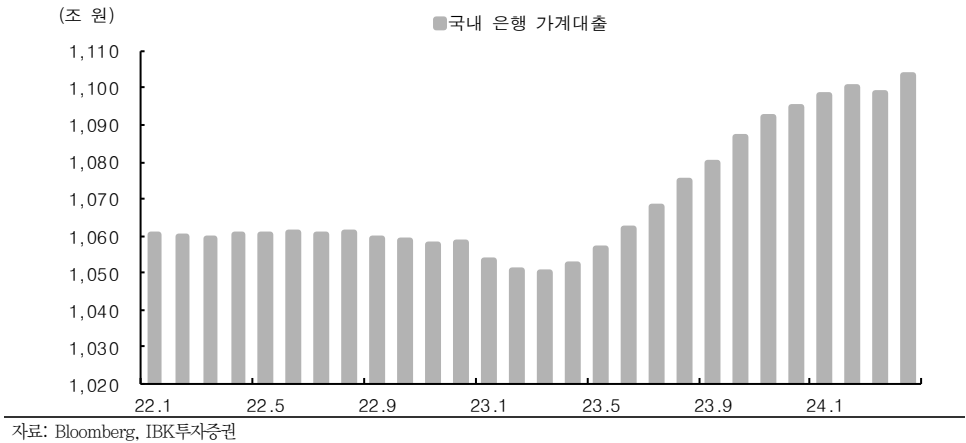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들 중, 여전히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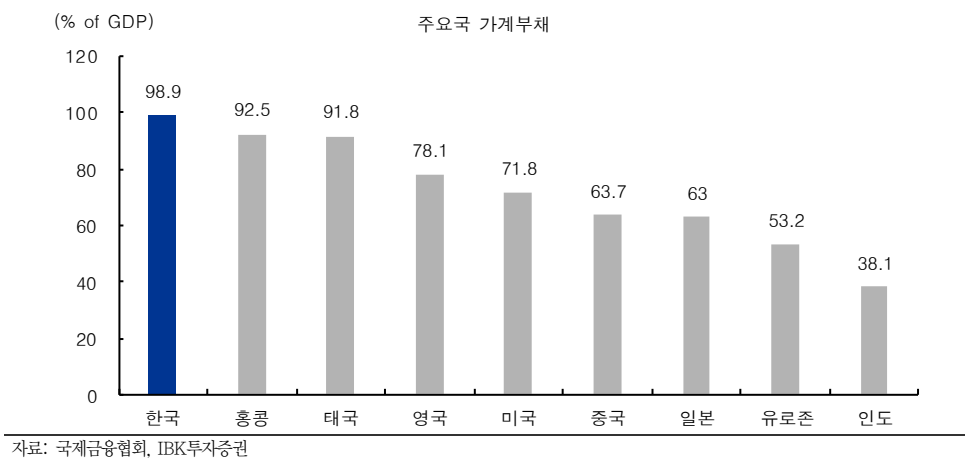


그림 3. 하락 추세를 보인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

